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개혁주의 교회정치사에서 본 장로직

—Calvin과 Westminster Assembly를 중심으로—

허 순 길

차 례

서 론
Ⅰ. 칼빈과 장로직
Ⅱ. Westminster Assembly와 장로직
Ⅲ. 성경과 장로직
결 론

서 론

미합중국내의 9개 대교파가 하나의 교회를 모색하는 기구인 교회일치협의회(Consultation on Church Union)는 1970년 3월에 교회의 일치계획서(A Plan of Union)를 작성하여 회원교회들에게 배부하였다①. 이 계획서에서 가장 깊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새 교회를 위한 교회정치 조직이다. 여기 고안된 정치조직은 교권적 감독체제로서, 장로교 신자들에게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개혁주의 교회정치에 있어서 하나의 핵심적 요소가 되는 장로직이 자취를 감추어 버린 것이다.

거기에 장로(Presbyter)란 직명이 보이나 치리하는 장로를 가르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목사를 가르키고 있는 것이다②.

교회정치에 있어서 감독정치체제는 오늘날의 대규메니칼운동이 제창하는 단일교회 형성을 위하여 매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다. 그이유는 소위 "카토릭"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파교회들은 교회일치를 위하여 프로테스탄트교회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역사적 감독직분을 받아 들이는 것을 필수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③.

개혁주의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① 교회일치협의회(Consultation On Church Union)는 COCU로 표기한다.
교회일치계획서(A plan of union for the church of christ uniting)는 CCCU의 집행위원회를 통하여 배포되었다. COCU운동에 가담된 회원교회는 다음의 9개 교파이다 : The African Methodist Episcopal Church, The African Methodist Episcopal Zion Church, The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The Christian Methodist Episcopal Church, The Episcopal Church,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 The United Church of Christ, The United Methodist Church, 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이 교파들의 전체 신자수는 약 2천 5백만을 헤아린다.

② 마지막 5장에 걸쳐 길게 교회정치론 취급하고 있다(APlan of Union 38—82). ibid., 45 "In the United Church three orders are to be recognized with particular functions attaching to each: Presbyter, Bishop, and Deacon".

③ cf. Eugene P. Heideman, Reformed Bishops and Catholic Elders, Grand Rapids 970, 90.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이 교회일치협의회(COCU)를 창설하고 운영하여 오는데 공헌을 한 미국의 장로교 대교파인 남북장로교회는 이 20세기의 대에큐메니칼운동을 위하여 장로직을 희생시킴으로 역사적인 개혁주의 교회 정치원리를 사실상 포기하려하고 있는 것이다④.

Robert E. Thompson은 장로직을 가리켜 "장로교의 영광이요, 힘"이라고 하고 있다⑤. 장로교회가 이 장로직을 포기해 버린다면 이는 사실상 개혁주의 장로교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개혁주의 장로교 정치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인 장로직에 관하여 개혁주의 역사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성경적인 바른 해석을 새로이 해볼 필요를 가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개혁주의 교회정치의 기반을 닦아 준 칼빈(John Calvin)이 장로직에 대하여 가졌던 견해와 장로교 헌법의 원리를 작성해 준 웨스트민스터회의(Westminster Assembly)에서의 장로직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살핀 다음 성경적인 입장에서 이를 간단히 논평하고자 한다.

Ⅰ. 칼빈과 장로직

P. Schaff는 말하기를 "칼빈의 사역의 실천적 교회론적 분야는 어느면에 있어서는 그의 신학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⑥. W. Cunningham 역시 원리의 확립과 진리의 발전에 대한 칼빈의 공헌은 어떤 이론의 분야에서 보다 교회조직의 분야에 있어서 더욱 위대하였다고 보았다⑦. 그의 교회정치조직면에 있어서 가장 특기할만 한 개혁은, 로마교회에서 단지 성례(聖禮)의 집행자로서 변질되어 버린 복음증거자의 직분을 회복시키고, 감독의 시종자로 전락된 장로직분의 위치와 기능을 회복시켜 놓은데 있다.

본론에서 우리의 연구의 대상은 장로의 직분에 관해서이다.

칼빈의 장로직에 대한 견해는 일시에 완성된 것이 아니고 긴 사상적 발전의 과정을 겪었다. 이 과정을 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살핌으로 우리는 그의 장로직에 대한 견해를 이해하게 된다.

1536년에 출판된 그의 기독교강요 초판에서 칼빈은 복음증거자직인 목사직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여 언급하고, 치리장로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⑧.

그는 성경에 나오는 Presbyteros와 Episcopos의 명칭이 동의어이고 이 양자가 다 "복음을 증

④ COCU운동은 1960년 12월 4일에 Sanfrancisco에 있는 Grace Cathedral에서 장로교 목사 Eugene Carsen Blake가 "그리스도교회의 재연합을 위한 제의"란 강연을 하므로 탄생되었다. 미국 연합장로교회는 COCU운동의 창설회원교회이고(1962), 남장로교회는 1966년에 회원교회로 가입하였다. 참고 W. Stanley Rycroft, The Ecumenical Witness of 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 in the U. S. A., Board of Christian Education of U. P. C. in the. U. S. A, 1968, 153-158.

⑤ Robert E. Thompson, A History of the Presbyterian Churches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Church History vol. vl, New York 1895, 229.

⑥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New York, 1919(4th ed.), vol. I, 460.

⑦ William Cunningham, The Reformers and the Theology of the Reformation, Edinburg, 1862, 27.

⑧ OC, I 185~187, OC는 G. Baum, E Cunitz, E. Reuss에 의해 편집된 Calvin 전집(OPERA OMNIA)을 가리킨다.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거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직분을 지적하는 것으로만 생각했다⑨. 이는 칼빈이 처음에 로마교회에서 자취를 감춘 복음을 증거하는 직분의 회복에 대하여만 큰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회를 시작함으로 실제로 교회정치와 관계를 갖게 되었을 때(1536년), 그는 즉시 교회조직과 예배에 관한 조항(de Articles Concernant I' Organisation de I' Eglise et du culte à Genève)을 초안하고 1537년 1월 16일에 시(市) 소의회(小議會)에 제출하여 통과를 보았는데 이것은 권징, 교회찬송, 청소년교육, 결혼 등의 네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었다⑩.

칼빈은 이 네 가지 항목중에서 첫번째인 교회권징에 대하여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권징의 실천방안으로 목사들은 각 구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선한 생활과 증거를 가진 몇몇 덕망이 있는 사람들의 협력을 얻는 것이었다. 이 사람들은 시의회에서 선택을 받아 시민의 생활을 감독하고 권징의 시행을 위하여 목사와 밀접하게 접촉하며 협력하는 것이었다. 이들의 의무는 뒤에 세운 장로와 거의 같았다. 그러나 칼빈은 이들을 장로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우리는 여기서 일찍 법률학을 연구한 칼빈이 실천생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된다. 그가 제네바에 왔을 때 권징이 전혀 없는 방종한 시민생활을 보고, 건전한 생활건선을 위하여 성경을 따라 권징을 시행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직 Calvin은 장로직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는 갖지 못했었다. 장로직에 대한 어느 정도 분명한 견해는 1538년 제네바에서 추방을 당한후 Straatsburg의 생활에서 다시 제네바로 초청을 받아 돌아온 1541년경에야 발견할 수 있다. 칼빈은 제네바에 도착하자 곧 교회법(de Ordonances Ecclesiastiques)을 초안하고 시의회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았다⑪. 칼빈은 이 교회법에서 처음으로 그의 직분에 대한 견해를 밝혀 네 가지 직분 곧, 목사(pasteurs), 교수(docteurs), 장로(anciens)와 집사(diacres) 직분을 제시함으로⑫, 비로소 교회의 항존직분에 대하여 밝히면서 장로직을 그 중 하나로 간주하였던 것이다. 이는 신로 개혁주의 교회정치사에 있어서 중대한 모멘트(moment)였다. 거기에 밝힌 장로직의 의무는 "각인의 생활을 살피고 범죄한자들과 방종한 생활을 하는 자를 책망하며 필요한 경우에 친절히 징계를 하기 위하여 구성된 회에 보고할 것이며, 다른 분들과 함께 실제로 징계를 하는" 것이었다⑬.

개혁주의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이 교회법규를 1537년의 "교회의 조직과 예배에 관한 조항"(de Articles)과 비교할 때, 그 동안의 칼빈의 견해에 큰 발전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칼빈이 Straatsburg에 있는 동안 그곳에서 교회의 조직과 장로의 직분을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던 Bucer와의 친교를 통하여 인

---

⑨ OC Xa, 5-14 영어로 번역된 전문은 Theoretical Treatises, vol xxii in the Libray of Christian Classics Philadelphia, 1954, 48—55을 보라.

⑩ Calvin은 1541년 9월 13일 제네바로 다시 돌아왔고, 동년(同年) 11월 20일에 이 교회법안이 시대의회(市大議會)를 통과하게 되었다.

⑪ OC Xa, 15—30에서 de Ordonances의 원문을 보라.

⑫ OC Xa, 22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향을 받은 것이 있을 것이다⑭. 그러나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칼빈이 이 교회법에 있어서 목사직에 대하여는 분명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직명을 택하고 있지만, 치리장로직을 위하여서는 아직 분명한 성경적 근거를 주고 있지 않는 것이다⑮.

이 교회법(de Ordonances) 다음에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1543년에 출판된 기독교강요 증보판(Straatsburg 생활에서 이미 준비가 다 되었던 것으로 생각됨)과 그 뒤에 계속 나온 증보판들이 장로직분에 대하여 보여주는 견해들이다. 이 가운데서 칼빈은 장로직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는 성경에 Presbyteros와 Episcopos라는 직명을 가리키는 어휘가 다만 치리하고 가르치는 직분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했던 그의 기독교강요 제1판에서의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견과로 장로직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이 두 어휘 밖에서 찾으려하고 있는 것이다.

칼빈은 먼저 Presbyteros와 Episcopos를 동의어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가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을 감독, 장로, 목사, 종들이라고 구별없이 부르는 것은, 이 이름들을 두루 섞어 사용한 성경의 습관을 따라 한 것"이라고 하고, 이를 위하여 디도서 1 : 5, 7, 빌 1 : 1, 행 20 : 17, 28을 지적한 다음 이 칭호들이 가르치는 직분만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 이르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에 수종드는 직분만을 들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한다⑯.

그리고 곧 치리장로직의 성경적인 근거를 밝힌다. 그는 이 근거를 Presbyteros나 Episcopos의 명칭에서 찾지않고 롬 12 : 8의 "다스리는 자"(proistamenos)와 고전 12 : 28의 "다스리는 것"(Kubernesis)에서 찾고 있다. 그는 말하기를 "로마서 12 : 8과 고린도전서 12 : 28에서 바울은 다른 직분 곧 능력과 병고치는 은사, 해석하는 것, 다스리는 것, 구제하는 것 등을 든다. 이 직임가운데서 나는 일시적이었던 것을 제거한다. 그 이유는 거기 오래 머물러 있을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중 계속되는 두 가지가 있으니, 곧 다스리는 것과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다. 나의 생각에 다스리는 자는 감독(Episcopos)과 함께 생활을 살피고 권징을 시행하기 위하여 백성가운데서 택한 장로들이었다."고 한다⑰.

이상과 같이 칼빈이 치리장로직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다스리는 자"와 "다스리는 것"에서 찾고 Presbyteros와 Episcopos에서 찾지 않으면서, 다른 곳에서 초대교회에 두 종류의 Presbyteros가 있다고 함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환언하면 초대교회에 치리만하는 장로와 말씀증거와 치리를 겸무하는 장로가 있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로써 딤전 5 : 17을 지적하고 있다⑱.

그는 다시 다른 곳에서 치리장로직과, 교육과 치리를 겸무하는 장로직이 동일한 장로급에서 나왔다고 밝히 말하기를, "장로급에서 일부분이 목사로 선택이 되고, 나머지 부분이 행실과 권

⑭ W. van t' Spijker, De Ambten bij Martin Bucer, Kampen 1970, 361—365.
⑮ OC Xa., 17
⑯⑯ OC, I, 566, Cf. Ⅱ. 782, Inst. Ⅳ, 3. 8
⑰ Ibid
⑱ OC., Ⅱ. 892, Inst. Ⅳ, 11.1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징에 대한 감독권을 가졌다."고 하였다⑲. 이로 보건대 가르치는 직분은 원래 치리직으로서의 장로직에 근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듯 보인다.

그러나 앞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칼빈이 일찍 치리장로직을 성경의 Presbyteros 나 Episcopos 에서 그 근거를 찾지 않은 것을 생각할 때, 그의 사상의 조화와 장로직에 대한 뚜렷한 성경적 근거를 그에게서 찾기 힘든다.

칼빈의 성경주석에도 거의 같은 모호한 견해를 보게된다(로마서 주석(1539년)이외의 모든 주석은 Straatsburg 에서 Genéve 에 돌아온 이후에 씀). 그의 기독교강요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의 주석에 있어서도 Presbyteros 와 Episcopos 를 대부분 말씀에 수종드는 자들로 이해하고 있다. 예를 들면 빌 1 : 1의 Episcopoi. 디도서 1 : 5, 행 14 : 23등의 Presbyteroi 를 모두 치리교육을 겸한 직분으로 이해하고 있으면서, 에베소교회의 Presbyteroi(행20 : 17)에 대하여서는 치리장로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딤전 5 : 17의 주석에서 그는 두 종류의 장로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주석에 있어서도 장로직에 대한 칼빈의 성경적 근거는 선명하지 않은 것이다. 이상에서 칼빈의 장로직에 대한 견해를 일괄하여 볼 때, 그는 분명한 성경적 근거를 주지 못했음이 분명하다. 성경에 나타난 Presbyteros 와 Episcopos 를 가르치는 목사직으로만 생각하던 그의 첫 견해가 두 종류의 Presbyteros 가 있다는 성경적 근거(딤전 5 : 17)에 부딪칠 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으며, 부자연한 해결점을 찾고 있는 듯 보인다.

최근 Ganoczy 도 칼빈의 직분에 대한 연구에서 그가 장로직에 대한 충분한 신학적 근거를 취하지 못했으며, 직분에 대한 교리를 완성하지 못했다고 한 점은 주목할만하다⑳.

장로직에 대한 칼빈의 성경적 견해가 분명치 못했다는 이유를 어떤 이는, 그의 이론이 실천을 뒤따르게 된데 있다고 본다㉑. 이 가운데도 일리(一理)가 있다고 보겠으나 칼빈은 그가 당면한 구체적인 교회환경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을 계속적인 성경연구와 교부들의 연구에서 찾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칼빈이 Presbyteros 와 Episcopos 를, 목사를 지칭하는 것으로만 처음부터 보게 된 것은, 개혁자로서의 그의 가장 큰 관심이, 말씀을 증거하는 직분의 회복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이해가 간다. 말씀을 증거하는 직분의 회복은 복음증거자의 직분이 성례만을 수종드는 직으로 변질된 로마의 교권적 의식종교 앞에서 급선무였던 것이다㉒. 그러나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정치는 교리나 설교에 비교해서 결코 부수적이거나 중요치 않은 문제는 아니었다. 성경에서 탈선한 교회정치가 얼마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치어 왔음을 보았으므로 성경적인 정치회복과 동시에 장로직에 대하여도 성경적인 바른 근거를 주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다. 성경

---

⑲ OC., Ⅱ. 788, Inst. Ⅳ, 4. 1

⑳ Alexander Ganoczy, Ecclesia Ministrans, Dienende Kirche und Kirchlicher Dienst bei Calvin, Freiburg 1968, 315—324.

㉑ G. D. Henderson; Presbyterianism, Aberdeen 1954, 64.

㉒ J. Macpherson, Presbyterianism, Edinburgh 1949, 44.

적인 분명한 근거를 주지 못한 것이 그에게 있어서 결코 불명예가 아니다. 우리는 이 직분의 근거를 성경에서 발견한데 그의 공로를 찾으며, 그가 밝히지 못한 부분을 그의 신앙적 후예들의 몫으로 생각함이 옳을 것이다. 이런뜻에서 H. Bouwnman도 로마교회에서 변질된 신약에 가르친 장로직의 영예를 칼빈이 회복시켰다고 바로 말하였던 것이다[2].

Ⅱ. Westminster Assembly와 장로직

Westminster Assembly(웨스트민스터 회의)는 1643년 7월 영국내에 일어나고 있는 개혁운동으로 인하여 무너진 로마교적 교권체제 대신에 새로운 교회정치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영국의회가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소집한 종교회의를 가리킨다. 이 종교회의의 할 일은, 주로 교회정치 개혁을 위하여 의회를 자문하는데 있었다[3]. 회의의 의사일정에는 새로운 의식, 권징, 교회의 정치등이 있었고 신앙고백을 작성하는 일은 언급되어 있지 않았으니 그 이유는 당시 영국교회의 교리가 건전한 개혁주의 입장에 서 있다고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이 회의의 의원으로 지명을 받은 신학자들은 교회정치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고 있던 여러 집단에 속해 있었다[4]. 첫째로 고교회주의자(High Church Group)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처음부터 개혁주의 성격을 가진 이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둘째로 독립교회주의자(Independents 혹은 Congregationalists)들이었는데 Thomas Goodwin, Philip Nye, Sidrach Simpson, Jeramiah Burronghs, William Bridge, William Carter 등을 들 수 있다. 세째는 에라스티안주의자(Erastians)들로 John Lightqoot과 Thomas Coleman의 단지 두사람이 있었으나 법률학자 John Seldon의 도움을 입어 크게 활동을 하였다. 네째가 장로회정치와 감독정치의 혼합정치체제를 지지하는 자들로서 Willian Twisse, Thomas Cataker, Herbert Palmer, Thomas Temple 등이 속해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수를 차지한 것이 장로회정치를 지지하는 신학자들이었는데 이들 가운데 Lazarus Scaman, Charles Herle, Richard Vines 등을 들 수 있다. Scotland에서 온 특사(特使)들은 이 장로회파에 속한 분들로서 자문위원들로 참석하여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Rboert Baillie, George Gillespie, Alexander Henderson 등을 들 수 있다.

웨스트민스터 대종교회의는 교회정치면에 있어서 이렇게 의견을 달리하는 여러 집단을 배경하고 있는 신학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의견의 충돌과 어려움이 없이는 교회정치체제를 작성할 수 없었다. 다수가 장로회정치체제를 지지하였지만 의견을 달리하는 집단과의 결렬(決裂)을 생각하지 않고는 그들 자신의 의견을 관철할 수 없었다.

---

② H. Bouwman, Gereformeerde Kerkrecht, I, Kampen, 1928, 522.

③ cf. George Gillespie, Notes of Debates and Proceedings of the Assembly of Divines and Other Commissions at Westminster Feb. 1644 To Jan. 1645, Edinbourgh 1846, VII—IX. 121명의 신학자, 하원의원 20명, 상원의원 10명이 처음에 지명됨.

④ B, B. Warfield, The Westminster Assembly and It's Work, New York 1931, 37, 38.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그러므로 어떤 점에 있어서는 서로 양보하는 일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Scotland에서온 목사들은 자문위원으로서 중간 입장을 지킴으로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해결점을 얻기 위하여 가능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장로직의 문제에 관한 상호의 양보와 적응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1643년 11월 22일에 장로직 문제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었다. 첫번째 위원회가 연구 제출한 장로직에 대한 초안은 장로회정치를 지지하는 사람의 의견이 주축이 되어 나타났는데 그 원문은 "잘 다스리고 말씀과 교리에 힘쓰는 장로들외에 말씀과 교리에 힘쓰지 않지만 특별히 다스리는 일에 봄을 바치는 장로들이 있다."는 것이었다[26]. 그리고 이 주장의 성경적 근거로 딤전 5 : 17과 롬 12 : 8, 고전 12 : 28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곧, 딤전 5 : 17의 장로에 관한 의견이 예리하게 대립되어 심각한 논쟁이 벌어졌다.

어떤분은 딤전 5 : 17의 Presbyteros를 국가의 명사를 말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27], Herle와 Vines는 가르치는 장로(목사)로만 생각하고 Seaman은 두 종류의 장로 곧 치리하는 장로와 교육과 치리를 감무하는 장로의 양자로 생각했다[28].

종교는 국가에 종속하여야 한다는 사상을 가진 Erastian파에 속한 사람들이 치리장로직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10일간이나 아무런 결과를 보지 못하고 논쟁하다가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조절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가 12월 8일에 세 가지 항목으로 된 새로운 안(案)을 제출하였다.

"1. 그리스도께서 교회안에 정치를 세우시고 교회치리자들을 세우셨다.

2.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의 어떤분에게 다스리는 은사를 주시고, 이를 위해 부름을 받을 때에 그 은사를 시행할 사명을 주신다.

3. 말씀의 사역자 외에 어떤분들 혹은 교회치리자가 교회정치에 있어서 목사와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고 또 정당하다 (롬 12 : 7, 8, 고전 12 : 8)."[29]

이 장로직에 대하여 새로이 조절된 설명안이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치리장로직의 신권(Jus Divinum)이 근거한 핵심적 성구인 딤전 5 : 17이 제거되어진 사실이다. 이 때문에 장시간의 논쟁이 있은 나음 위의 새 안(案)이 그대로 통과되었던 것이다. 이는 순전히 양보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에 의하면 치리장로의 직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라기 보다는, 단지 성경적으로 인정을 받을 직분(warrantable by the word of God)이라는 것이다[30]. 따라서 최근에

개혁주의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㉖ John Lightfoot, The Whole Works of the Rev. John Lightfoot, D, D. Vol. Xiii, Containing The Journal of the Proreedings of the Assembly of the Divines from Jan. 1, 1643 to Dec. 31. 1644 etc, London 1824, 43.

㉗ ibid, 60, 61.

㉘ ibid, 61.

㉙ ibid. 63

㉚ MS, 1, 497 MS는 Minutes of the Sessions of the Wesminster Assembly of Divines, from Aug. 4th. 1643, to March 25th 1652, 3vols. E. Mounde Thompson과 John Streethers의 사본을 가르킨다. 이 사본의 microphoto가 London의 Dr. William's Library에 있다.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웨스트민스터 회의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한 G. R. De Witt는 A. F. Mitchell과 W. Beveridge의 의견에 동조하여 판단하기를 "웨스트민스터 회의는 장로직의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절대적신권(Jus Divinum)에 이르지 못했으며, 장로직이 모든 시대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설정(設定)이라는 확신을 가진 다수의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이 직분에 관하여 '성경에 일치하고 성경이 보증'한다고 선언하는 범위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다."[31] 하였다[32].

Scotland의 철저한 장로회정치를 옹호하는 신학자 Henderson도 이 안(案)이 장로직에 대한 성경적 기초를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음을 알면서도 대립된 양방을 다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만족하여야만 했다[33].

웨스트민스터 회의가 장로직의 근거에 대하여 1644년 12월에 최종으로 받은 공식문에는 어느 정도의 수정이 가해졌다.

"유대 교회내에 교회정치에 있어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연합한 백성의 장로들이 있었음과 같이(대하 19 : 8, 9, 10에 나타나는 대로), 교회에 정치를 세우시고 교회치리자를 세우신 그리스도는 말씀의 봉사자 외에 그의 교회의 어떤분에게 정치에 대한 은사를 주시고 부름을 받을 때에 그 일을 집행할 사명을 주셨다. 이들은 교회정치에 있어서 목사와 연합할 것인데 (롬 12 : 7~8, 고전 12 : 28), 이 직분자들을 개혁교회는 일반적으로 장로라 부른다."[34]

이 최종의 공식문에서도 먼저 것과 원리적으로 변화된 것은 없다. 여전히 딤전 5 : 17의 증거구절이 삭제되어 있으며 치리장로를 성경의 Presbyteros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Westminster Assembly가 교회정치에 대한 매우 다른 견해를 가진 집단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신학자들의 모임이라는 특수사정때문에 장로직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장로회 정치를 지지하는 신학자들은 장로직이 분명히 신권(Jus Divinum)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장한 것만은 틀림없다. 다만 개혁의 기운이 불붙고 있는 영국안에서 예리한 충돌과 불행한 결렬(決裂)을 피하기 위하여 한걸음 양보한데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특수한 시대적 환경으로 가리워진 진리는 후대의 개혁의 후예들의 노력으로 밝혀져야만 했던 것이다.

개혁주의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Ⅲ. 성경과 장로직

칼빈과 웨스트민스터 회의의 신학자들은 모두 예외없이 그 시대의 아들들이었다. 이들이 장로회정치의 역사적 기틀을 놓았지만 그들이 위치한 특수한 환경으로 말미암아 직분의 근거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선명하게 밝히지 못한 점이 있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다.

---

31) J. R. De Witt, Jus Divinum, The Westminster Assembly and the Divine Right of Church Government, Kampen 1969, 85.
32) MS. 1. 500.
33) Cf. Iain Murray, The Reformation of the Church. A Collection of Reformed and Puritan Documents on Church Issues. London 1965, 213, 214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칼빈이 성경의 Presbyteros 와 Episcopos 가 가르치는 목사 직분만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여 오던 중 딤전 5:17에서 두 가지 종류의 장로직에 부딪쳤을 때에 선명한 해석을 주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후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치리장로를 성경의 Presbyteros (Episcopos)로 보아야 하는지 주저하는 단서를 주었던 것이다[34].

Westminster Assembly 의 신학자들 역시 장로직의 신권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두가지 종류의 Presbyteros 를 밝히는 딤전 5 : 17을 제거하므로 양보하여 버렸을 때 치리장로에게 Presbyteros 나 Episcopos 라는 성경적인 칭호를 돌리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고 만 것이다.

그러면 성경의 Presbyteros 나 Episcopos 란 직명이 가르치는 직분인 목사만을 가리키는가? 이에 대한 우리의 답은 부정적이다. 이를 밝히는 것이 장로직의 신권확보를 위해 귀중한 것이다.

첫째로 어원을 생각할 때 Presbyteros 와 Episcopos 는 가르치는 일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다.

구약에 나타나는 장로(자켄)는 원래부터 가르치는 직분이 아니었다[35]. 회당의 장로들 역시 아무런 가르치는 의무를 갖지 않았다. 또한 유대인 사회의 장로는 시민적 종교적 직임을 겸임하고 있었으며, 회당에서의 종교행위(기도, 찬송, 설교)는 어느 특정인물이 수행하지 않았고, 이에 합당한 신자들은 누구든지 할 수 있었다. 예수께서도 회당에서 말씀하셨다(마 4 : 23, 9 : 35, 12:19, 막 1 : 21, 1 : 39, 눅 4 : 15, 13 : 10 등)[36].

Episcopos 는 희랍인 세계에서 종교적 기능을 행사하는 자의 칭호로써가 아니고 주로 기술적, 정제적 의무를 지고 있는 자의 직명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종교단체에 있어서의 Episcopos 도 결코 사제(司祭)로 간주되지 않았고 외부적인 질서를 관리하는 자들을 가리켰다[37]. 이렇게 어원을 볼 때 Presbyteros 나 Episcopos 는 원래 가르치는 기능을 가진 직명이 아니었다.

둘째로 초대교회의 특수한 형편은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직분을 긴급하게 필요로 하지 않았다. 사도들이 매일 성전과 집에서 가르쳤다(행 2 : 42, 5 : 42).

전도자와 선지자들이 교사로서 등장했으며(행 13 : 1, 고전 14 : 3, 딤전 1 : 11), 아무런 직분도 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주어졌다(행 13 : 1, 고전 12 : 8, 28, 29, 14:26). 그래서 회당에서 누구든지 성경의 한 부분을 읽고 설명할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에서도 누구든지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자가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었다(눅 4 : 16, 고전 14 : 1, 5, 13~19, 26 29, 30). 이렇게 초대교회에 내린 부요한 은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이바지하였다. 이 가르치는 은사가 자유스럽게 나타나는 동안은 선교의 사역을 담당해야할 특수한 직분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이 없었던 것이다.

㉞ Cf. C. Hodge, The Church and it's Polity, London 1879, 130 Hodge는 Calvin에 호소하여, 성경에 Presbyteros와 Episcopos는 다만 목사를 가리킨다고 주장하였다.

㉟ Ph. Huijser, De Ouderling en de Prediking. Kampen, 1959, 2

㊱ Cf. P.A.E. Sillevis Smitt, De Organisatie van de Christelijke Kerk in den Apostolischen Tijd, Rotterdam 1910, 69

㊲ H.W. Beyer, G, kittel의 TWB(Theologisches 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t, Stutgtart, 1933 출판) Ⅱ, 603—617, ἐπισκοπος 항목을 보라.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그런데 이때에 벌써 예루살렘교회안에 장로가 있음을 본다(행 11 : 30).

이 예루살렘교회의 장로가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세워졌는지 잘 알 수 없으나, H. Bavinck에 의하면 이 예루살렘 장로들은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난 "집사직을 세우는" 일이 있기 전에 사도들을 통하여 세워졌을 것이라는 것이다[38]. Sillevis Smitt도 예루살렘 장로들이 회당의 예를 따라 매우 일찍이 세워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39]. 이 견해들은 받을 만 하다고 본다.

오순절 성신강림이후 예루살렘교회 신자의 수가 급증하므로 사도들은 교회를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에 사도들은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 신자들의 가정을 심방하고 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회당의 예를 따라 장로들을 세웠을 것으로 보여진다.

후일에 이방인 기독교회에서는 이 동일한 장로직분(Presbyteros)에 대하여 그들의 귀에 익숙한 감독(Episcopos)이란 직명을 붙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 양 직명은 언제나 성경에 동의어로써 나오고 있다(행 20 : 17, 28; 디도 1 : 5, 7 비교; 빌 1 : 1; 딤전 3 : 1~7; 5 : 17).

이상의 근거에 의하여, 이 동의어인 Presbyteros와 Episcopos의 원래의 직임은 가르치는데 있지 않았고 신자들을 지도하고 생활을 감독하는데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그러면 가르치는 목사의 직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가? 이 직분은 이미 세워진 장로직(Presbyteros, Episcopos)에 근거를 하고 세워진 것이라 생각이 된다. 우리는 역사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다 살필 수 없다. 그러나 사도적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이에 대하여 전연 소경이 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따라 살필 수 있는 직분의 발전과정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 목사직은 교회의 형편이 변하여짐에 따라 장로중에서 가르치는 일에 전무(專務)하는 자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워진 것이라 생각된다.

교회는 곧 로마에까지 확장되었다. 사도와 전도자들의 비상한 직분이 이어 사라졌고, 주님이 경고하신 대로 (마 7 : 15; 24 : 11; 막 13 : 22; 눅 6 : 26)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이 나타났다 (벧후 2 : 1; 요일 4 : 1; 약 3 : 1). 가르치는 은사의 자유는 남용이 되어 신자들은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더욱 Gnosticism과 신비주의의 유혹이 교회내 침투해왔다(요한복음과 요한서신 참조). 따라서 이 때의 교회를 감독하는 모든 자들은 잘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어야만 했다(딤전 3 : 2; 딛 1 : 8).

이에 점점 일어나는 이단의 교훈을 대항하며, 복음의 진리를 파수하고, 교회의 성결을 보존하기 위하여는 말씀연구와 그 증거에 전무하는 장로가 필요하게 되었다. 고(故)로, 장로중에서 어떤이를 구별하여 치리와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증거하는 일을 전무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에 우리는 딤전 5 : 17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Presbyteroi)"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Presbyteroi)"의 두 종류의 장로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된다.

---

38 H. Bavinck, Gereformeerde Dogmatiek, 4de dr. IV, kampen 1930, 32

39 Sillevis smitt, O.C., 67

40 cf. James Bannermann, The Church of Christ, A Treatise on the Nature, Powers, Ordinances, Discipline, and government of The Christian Church, ii, London 1960 (Reprint), 274.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이렇게 원래 장로직은 교회의 치리를 목적하고 세워졌으나 변화하는 환경에서 교회의 필요를 따라 이 장로들 가운데서 원래의 의무인 치리만을 행하는 장로와 가르침을 겸무하는 장로, 곧 목사의 두 반이 나누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이 결과 치리와 함께 가르침을 겸무하고 차츰 이 일을 전무하게 된 장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안에 목사와 교사로서 선지자적 직능인 복음증거와 파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케 된 것이다(비교; 딤전5 : 17, 엡4 : 11, 계1 : 20).

이상에서 우리는 치리장로의 직분이 다만 목사의 보조역을 위하여 차츰 세워진 직분이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봉사를 위해 신약교회초기(新約教會初期)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엄연히 세워진 직분 곧, Presbyteros, Episcopos의 직명이 주어진 직분임을 알게 된다.

특수한 환경에서 칼빈과 웨스트민스터 회의의 신학자들이 밝혀 놓지 못한 부분을 밝힐 의무를 개혁의 후예들은 가진다.

결 론

우리는 칼빈과 웨스트민스터 회의의 신학자들이 선명하게 밝혀 놓지 못한 장로직에 대한 문제를 성경의 빛 아래서 간단히 살펴 보았다. 장로직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교회의 치리와 감독을 위하여 그의 사도들을 통하여 세우신 직분이다. 그러므로 이 직분은 인간이 창안하여 세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권(Jus Divinum)에 속한 것이다. 그러기에 이 직분의 존폐 문제를 사람이 거론할 수 없다.

그러나 W.C.C.적 에큐메니칼운동에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확실한 정치체제와 직분을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 하므로, 정치체제와 직분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여러 교파들에게 지나친 독단을 버리고 새 시대에 적응하는 새로운 정치체제아래에 한데 뭉칠 것을 호소하고있다[11]. 그리고 이들은 20세기의 환경에 사는 우리들이 1세기의 체제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으며, 필요하다면 조직, 직분 등 모든 것을 변조 신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교회일치계획서(A Plan of Union)"는 새로운 교회체제를 고안해 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밝히 근거하고 있는 장로직분을 폐지하므로 위대한 개혁자들이 회복시켜 이루어 놓은 일들을 허물어 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거목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욱 큰 겸손이 요청된다. K. Schilder가 강조하여 말한대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계속 성경을 연구함으로 그 뜻에 순종하여 교회를 세워 갈 것이다[12].

성경의 가장 단순한 한 구절과 이에 대한 바른 해석이 미미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는 자율(自律)에 묶인 어떤 훌륭한 인간적 이념보다 더욱 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주께서는 그의 교회를 위대한 재림의 아침을 향하여 인도하신다. 위대한 날이 올 때까지, 그가 우리를 영원한 영광중에 취하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연구하며 이를 따라 우리의 교회생활을 계속 개혁해 가는 것이 지상에서의 우리의 유일한 의무이다. 개혁교회는 말씀의 궤도를 따라 언제나 계속 개혁해 가는 교회이다(Ecclesia reformata ecclesia semper reformanda).

(神博・助敎授)

---

⑪ Cf Robert C. Johnson, The Christian Ministry, in: The Church and It's Changing Ministry, 22.

⑫ K. Schilder, De Kerk Ⅱ, Goes 1962, 203, 204, 207. cf. J. Jansen, Korte Verklaring Van-de Kerkenordening, Kampen, 1923, 93.